

이름뿐인 백운광장 진짜 광장 되나

남구, '중심 시가지형 공공기관' 뉴딜사업 응모 도시공사·조선대와 업무협약...새롭게 탈바꿈

광주 남구에 있는 백운고가도로 주변 백운광장이 새롭게 탈바꿈할 전망이다. 오는 2023년 1차로 개통되는 지하철 2호선 공사에 맞춰 고가도로 철거가 확정된 만큼 이 지역을 다시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남구는 이 지역을 차가 아닌 시민들이 왕래하는 광장의 본래 의미를 되찾기 위해 최근 포럼을 열어 논의하고, 전문성을 지닌 공공기관과 함께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키로 했다.

7일 광주 남구청에 따르면 을 상반기 진행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백운광장 일대를 '중심 시가지형 공공기관' 제안형에 공모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 2년간 백운광장과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해 국토부에 개별적으로 뉴딜사업을 신청했지만 잇따라 탈락하는 쓴맛을 겪어야 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공공기관 제안형 공모를 결정, 광주도시공사·조선대 LINC+사업단과 손을 맞잡고 사업 타당성을 적극 어필한다는 방침이다.

남구와 도시공사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도시재생 정책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가치공유·사업평가·성과확산·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정보교류 등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조선대 LINC+사업단과는 도시재생

아이디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발굴·운영하고, 인적·물적·교육분야 교류, 지역현안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달 22일 광주도시공사·조선대 LINC+사업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개발방향에 대해 포럼을 여는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이날 포럼에서는 '남구 도시재생사

업 방향성'을 주제로 류영국 양동 도시재생센터장이 발제했다. 이어 이영미 조선대 초빙 객원교수가 '백운광장 일원 푸른길 연계통합 도시재생 방향'이라는 내용으로 제안했다.

이영미 교수는 이 자리에서 "백운광장은 그동안 광장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차량과 사람을 갈라놓는 장소로 전락해왔다"며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고, 인근 푸른길 공원 중 유일하게 단절된 백운고가 인근에 원형 공중보행로 등을 설치해 시민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구 관계자는 "그동안 백운광장 뉴딜사업을 단독으로 추진, '역량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아 올해는 전문성을 가진 도시공사 등과 함께 공동으로 공모키로 했다"면서 "뉴딜사업에 선정돼 국비 300억원을 확보할 경우 이 일대에 600억원 상당의 투자효과가 나타날 것이다"고 기대했다.

한편, 국토부가 올 상반기 3곳을 선정할 예정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공공기관 제안형 사업은 8일까지 접수, 3월 말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김종찬 기자



광주시 남구 백운광장이 차가 아닌 시민들이 왕래하는 광장의 본래 의미를 되찾기 위해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공공기관 제안형 사업에 응모, 새롭게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규 기자

호남대 신임 총장에 박상철 박사 임명

18일 문화체육관광서 취임식



과 기획처장, 지방대학특성화(CK-1)사업본부장, 부총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총장직무대리를 맡아 대학을 운영해 왔다.

호남대학교 신임 총장에 박상철(52) 총장직무대리가 임명됐다.

학교법인 성인학원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박상철 총장직무대리를 제16대 총장으로 선임했다고 7일 밝혔다.

성인학원 이사회는 교육혁신과 창의 융합형 인재양성을 통해 호남대학교를 글로벌 명문사학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훌륭한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대학행정과 경영전반을 꿰뚫고 있는 박상철 총장직무대리를 제16대 총장으로 선임했다고 덧붙였다.

신임박 총장은 호남대서술사무소장

박 총장은 광주 석산고를 졸업한 뒤, 미국 유타대학교 경제학 학사, 한양대학교 경영학 석사, 경기대학교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편, 신임박 총장의 취임식은 오는 18일 오후 2시 호남대 문화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기철 기자

광주 교통문화지수 광역시 '전국 1위'

작년 어린이 사고 '제로'

광주시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실시한 2018년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특광역시 중 1위를 차지했다고 7일 밝혔다.

교통문화지수는 국토부가 매년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운전형태·보행형태 등 3개 영역에서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교통사고 발생정도 등 18개 항목을 조사·평가해 교통안전 의식수

준을 지수화한 수치다.

분야별로는 교통안전에서 19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으며, 운전형태는 45.6으로 서울에 이어 2위를, 보행형태는 대전에 이어 2위를 각각 기록했다. 전국 순위는 제주도에 이어 2위로, 지난해 전국 14위와 비교할 때 12계단 상승했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단 1건도 없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도 전년 대비 36% 줄면서 사망자 감소율은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강성수 기자

광주·전남 사립유치원 13곳 폐원·휴원

광주·전남에서 10여곳의 사립유치원이 경영난 등으로 폐원과 휴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관내 사립유치원 가운데 폐원과 휴원을 접수한 사립유치원은 광주 8곳, 전남 5곳 등 총 13곳에 달한다. 이

날 광주 복구한 사립유치원도 폐원의향을 밝혔다가 휴원으로 입장을 변경했다.

이들 유치원들은 수년간 원생들을 모집했지만 농촌지역이거나 도시외곽에 위치해 원생모집에서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기철 기자

전남교육청, '통일희망 열차학교' 대장정 돌입

내달 18일까지 참가학생 모집...북한 경우 추진

전남도교육청이 청소년의 역사 의식과 통일 의지 고취를 위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2019 전남통일희망열차학교' (이하 열차학교) 참가학생을 모집한다.

7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1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안중근 의사 의거 110주년을 맞아 역사교육과 통일교육을 강화하고, '열차학교'의 북한 경우를

성사시켜 2019년을 '통일희망 원년'으로 선포한다는 계획이다.

참가규모도 학생 80명, 교직원 20명 등 총 100명을 선정,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이어갈 방침이다.

교육내용은 역사학교, 통일학교, 민주시민학교 등으로 새롭게 구성된다.

특히 여름방학 중 14박15일 일정

로 추진될 통일희망 대장정은 북한 경우 실현을 위해 (사)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등 통일운동 민간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남북교육교류협력을 위한 조례 제정도 준비한다. 중학교 3학년 졸업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토록해 소속 고교의 관심과 지원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다양한 학생들에게 참가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기주도 전형

(60%),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20% 우선 선발), 특기자 전형(20%)으로 구분해 선발한다.

희망학생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나, 단 중학교 때 선상무지개학교나 도 단위 해외영어캠프 참가자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참가희망 학생들은 신청서류를 다음달 18일까지 소속 고등학교를 통해 교육청으로 제출해야 한다.

선발기준은 ▲(중학교) 각종 행사 참여활동 경험 ▲주제탐구 활동계획 및 실행능력 ▲수행의지와 참가동기 ▲인성과 협업능력 ▲독서토론능력 ▲체력 등이다. /조기철 기자

"10만원만 내놔"

○...새벽시간 대에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려 한 50대 노숙자가 경찰서행.

○...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송 모씨(53)는 전남 새벽 4시 33분께 서구 광전동 한 편의점에 달걀 크기만한 돌맹이를 들고 들어가 종업원 임 모씨(26·여)를 위협하며 '10만원을 내놔' 라고 했는데 종업원

이 경찰신고 김새를 보이자 달아났고, 출동경찰에 의해 5시간만에 현장에서 체포된 것.

○...송씨는 경찰에서 "돈이 떨어져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마음에 새벽에 사람이 없는 시간에 편의점에 들어간 것이다"며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두려운 마음에 상가 뒷쪽에 쪼그려 앉아 숨어있었다"고 진술. /김종찬 기자

덕남동 임야, 여수 땅,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지분 300평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장/단기 투자대비 큰수익 가능
- 매매 - 7500만원 (일시불 조정가)

- 전남 여수시 봉강동343-1번지의 2필지, 대지 431평 (343-1-260평, 343-2-141평, 344-30평)
- 세일신경외과 바로 옆, 6차선 도로접, 전면65M
- 일반상업지역-90%, 준주거지역-10%,
- 대출-18억7500만원
- 시세/감정가-약 35억
- 호텔/주상복합상가/메디컬센터등 모든업종 개발가능
- 매매 - 30억

문의. 010-3605-5000